

3/29/15

설교 제목: 예수님이 걸어 가신 십자가의 길 6 (주의 입성)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스가랴 1:7-17

- (속 1:7) 다리오 왕 제이년 열한째 달 곧 스باط월 이십사일에 잇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 (속 1:8)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절관주** 속 6:2, 계 6:4
- (속 1:9)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 (속 1:10)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절관주** 속 6:5, 히 1:14
- (속 1:11)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절관주** 욥 1:7, 욥 2:2
- (속 1:12)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절관주** 렘 25:11, 단 9:2
- (속 1:13)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절관주** 렘 29:10
- (속 1:14)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절관주** 욥 2:18, 속 8:2
- (속 1:15)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절관주** 사 47:6, 암 1:11
- (속 1: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관주** 사 12:1, 사 54:8, 속 2:2
- (속 1:17)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절관주** 사 44:26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이어 부활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기들의 겂옷과 함께 종려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퍼면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으며 열열히 환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겪은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맺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비록 지금은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고 있을지라도 언젠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고통과 서러움에서 해방될 것이다. 아니 해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최전성기인 다윗 때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 한가지 소망만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슴에 품은 채 그들은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들의 메시아, 그들을 풍요롭게 먹여 주고 잘 살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찾아 줄 그들의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목이 터지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환영이 있을 후 며칠이 못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주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게 된 것입니다.

(말 1: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입성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입성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BC 606년부터 침략을 당하기 시작하여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됨으로써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영원할 것만 같던 바벨론도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에게 BC 53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바벨론에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바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사는 포로들에게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바벨론이 포로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썼는데 반해서 바사는 포로들에게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대 총독 스룹바벨에게 포로로 붙잡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는 교서까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것이지요.

왕의 교서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건축 자재까지 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 오자 성전의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방해로 기초를 놓은 후 더 이상 건축을 진행하지 못한 채 15년의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성전 터는 황무해졌고 고레스왕이 보내 준 건축 자재는 각자 자신들의 집을 짓기 위해 가져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답보 상태로 있던 중 하나님께서는 선지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고 일깨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말이 하기 좋고 쉽지 여러가지 현재의 상황이나 여건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토당토 않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치적으로도 자칫하면 오해를 사서 무참히 학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건축이 15 년간이나 멈춰져 있는 동안 성전을 짓기 위해 쌓아 놓았던 자재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기 위해 하나씩 둘씩 모두 가져가 쓰고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 설상가상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빈곤하게 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 1: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학 1:10)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학 1:11)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같은 재정적인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바사는 정치적으로 무척 혼란한 때였습니다.

고레스 왕, 스킴바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교서를 써 주고 건축 자재까지 보내 주었던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로아스터교의 승려였던 가우마타가 고레스의 아들 스메르디스의 흉내를 내며 왕으로 군림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낸 다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일곱 방백이 가우마타를 죽이고 다리우스를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이런 혼란한 틈을 타 애굽과 바벨론 등을 비롯한 변방에서는 반란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 바사는 어느 지역이든지 조그마한 반란의 기미라도 보이면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기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괜한 오해라도 사면 대규모 학살을 면치 못할 것은 기정의 사실이었습니다. 옛말에 오얏 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오해할 짓을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건축을 외쳤고 백성들은 당연히 거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백성들을 흥분시켜 성전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학 1: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학 1:15) 그 때는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이십사일이었더라

이런 힘들고 두려웠던 시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성령님이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계를 두루 돌아보고 온 말을 탄 자들이 땅을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려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속 1: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속 1:17)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을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 왕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은 치열했으며 이스라엘은 법궤까지 메고 나갔으나 전멸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고 때마침 만삭이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인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브갓네살 왕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기 전에도 먼저 선지자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서 예루살렘의 참담한 죄악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전쟁에서 대패했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비추어 보건대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에 소망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다 평온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입성하지 않으셨던 예루살렘만은 평온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삶은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들어 오시면 우리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 날까요?

1.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슥 1:18)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슥 1:19)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뜨린 뿔이니라

(슥 1:20) 그 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슥 1:21)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흘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흘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하는 뿔을 대장장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능력이 부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기초를 놓을 때 방해 공작을 해서 결국 중단하고 15년 동안 방치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공사를 방해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모함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없이 학살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스가랴에 주시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잠재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방해를 막아 주셨습니다.

예상한대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사 다리우스 왕에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유가 반란을 위함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총독 스룹바벨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것은 15년 전에 고레스왕이 조서까지 써준 일이기에 지극히 합당한 일이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다리우스 왕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든 다리우스 왕은 성심껏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내었고 그 조서에 근거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건축 자재도 보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공문을 보내 세금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했으며 누구든지 이 일을 방해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 결과로 5년 만에 성전 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 1: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리우스 왕이 성심껏 서고를 뒤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은 일이 당연하다거나 아니면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 집니다.

(슥 1:17)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오심으로 성읍들이 넘쳐나며 풍부해지고 주의 위로가 있으며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 집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여 주셨고 그 결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완전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을 가리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전 마지막 날 저녁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며 당신이 떠나고 나더라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대로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제자들과 120 문도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충만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면 영혼이 풍성해 지고 삶에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임하실 처소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 결과 이전에 없었던 평안이 있으며 삶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의 몸에 성전을 건축하시고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풍성케 평안케 해 주실 것입니다.